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Rev. 22)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하는도다 (계 22 장)

I. MESSAGE OF THE BOOK OF REVELATION

계시록의 메시지

- A. Revelation 19 describes the celebration of God’s people. The wedding of the Lamb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ays in human history and the one of greatest achievements of the cross. The Father’s ultimate purpose for creation is to provide a family for Himself and a Bride for His Son as His eternal companion to reign with Him forever.

계시록 19 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나이며,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이다. 창조계를 향한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위해 가족을 예비하시는 것이며,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동반자인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다.

⁷Let us be glad and rejoice and give Him glory,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⁸And to her it was granted to be arrayed in fine linen, clean and bright, 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 acts of the saints. (Rev 19:7-8)

⁷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⁸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계 19:7-8)

- B. Jesus will come *only* in the context of a prepared Bride walking in deep unity with the Spirit. She will be prepared in her character, understanding of God’s ways and to minister in power.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성령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동역하는 신부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오실 것이다. 이 신부는 그 성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며 권능으로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 C. John was overwhelmed in seeing the great day. It was intensely personal to him, as he saw his own personal destiny and story in context to it.

요한은 이 위대한 날을 목격한 것으로 인해 압도되었다. 이 날은 그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인데, 그는 이 일 가운데 펼쳐지는 자신의 되어질 모습과 자신의 스토리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 D. Twice he fell down to worship an angel: first, after seeing the marriage supper (Rev. 19:10), then again after seeing the New Jerusalem as the Lamb’s wife (Rev. 21:9; 22:8).

그는 두 번이나 천사를 경배하기 위해 엎드렸다: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본 이후였고 (계 19:10), 그리고는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봤을 때이다 (계 21:9; 22:8).

⁹He said to me, “Write: ‘Blessed are those who are call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¹⁰I fell at his feet [the angel’s] to worship him. (Rev. 19:9-10)

⁹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 ¹⁰내가 그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 (계 19:9-10)

- E. The truth of this glorious wedding is not just a theological issue. *It is about who you are.*

이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의 진리는 단지 신학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될지와 관계 있는 것이다.

- F. The lyrics of a song written by Tim Reimherr captures the impact of the wedding day. He wrote, “*There’s going to be a wedding. It’s the reason that I am living—to marry the Lamb.*”

팀 라이머가 지은 노래 가사는 이 혼인 날의 영행력을 묘사하고 있다.

그가 지은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어린 양과의 혼인, 이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다.”

II.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REV. 22:17)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하는도다 (계 22:17)

- A. Revelation 22:17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phecies describing the end-time Church.

계시록 22:17 절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 중의 하나이다.

¹⁷*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him who hears say, “Come!” And let him who thirsts come...²⁰Surely I [Jesus] am coming quickly.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Rev. 22:17-20)*

¹⁷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 (한글 KJV: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 ²⁰ ... 내가 [예수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17-20)

- B. This prophecy describes the Church in unity with the Spirit, saying and doing what the Spirit is saying and doing. The Spirit is praying for Jesus to come in power to His people (Rom. 8:26) and is calling people to come to Jesus the Bridegroom God.

이 예언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령님께서 말하고 행하고 계신 것을 말하며 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그분의 백성에게로 오실 것을 기도하고 있으며 (롬 8:26), 사람들에게 신랑이자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나아올 것을 청하고 있다.

1. **Vertical:** an upward *call to Jesus* (intercession) to come to us in breakthrough power.

수직적으로: 위로 예수님을 향한 요청(중보)이며, 이는 돌파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시길 구하는 것이다.

2. **Horizontal:** an outward *call to people* to come to Jesus as the Bridegroom King.

수평적으로: 외부로 사람들을 부르는 청함이며, 이는 신랑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아오라는 것이다.

- C. The prayer “Come, Lord Jesus!” has at least three applications: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최소한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1. **Come near us in intimacy:** an individual breakthrough of my heart in God

우리에게 가까이 (near) 친밀하게 오시길: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마음의 개인적인 돌파

2. **Come to us in revival:** a regional breakthrough of healing, revival, justice or transformation
우리에게 (to) 부흥으로 임하시길: 치유와 부흥, 정의와 도시 변화의 지역적인 돌파

3. **Come for us in the sky:** a historical breakthrough at the second coming of Jesus
우리를 위해 (for) 하늘에 오시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역사적인 돌파.

- D. In the end times, the Spirit will **universally emphasize** the Church’s identity as Jesus’ Brid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John does not proclaim that the Spirit and the *family* say, “Come,” nor the Spirit and the *army*, nor the *kingdom*, nor the *body*, nor the *temple*, nor the *priesthood*. Rather, it is the Spirit resting with power on the Church who is a Bride. Forever we rejoice in the reality of our identity as God’s family, body, temple, priesthood, kingdom, etc.

성령님께서서는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신부임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실 것이다.** 요한은 성령과 그 권속(가족)이 “오소서”라고 외칠 것이라 말하지 않았으며, 성령과 그의 군대, 왕국, 몸, 성전, 제사장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성령님께서서는 신부인 교회 위에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몸이며, 성전이며, 제사장이며, 왕인 정체성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 E. As sons of God, we are in position to experience **God’s throne** as heirs of His power (Rev. 3:21). As the Bride, we are in position to experience **God’s heart** (emotions for us). These truths transcend gender. As sons of God we have access to His power and as the Bride to His heart.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는 그분의 권능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계 3:21).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우리를 향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두 진리는 성별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신부로서 그분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

- F. The Bridegroom message is about Jesus’ emotions for us, His beauty, His commitments to us (to share His heart, home, throne, secrets, and beauty), and our response of wholehearted love and obedience to Him. This message starts with experiencing Jesus’ heart, emotions, and affections for us. He delights in us, enjoys us, values our work, is committed to our greatness, and partners with us in ministry. We refuse all sensual overtones in proclaiming Jesus as the Bridegroom.

신랑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마음을 나누시며, 집과 보좌와 비밀과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헌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전심을 다한 사랑과 순종에 대한 것이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시며, 우리의 위대함을 향해 헌신되어 계시며, 사역 가운데 우리와 동역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신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데 있어 모든 관능적인 느낌과 해석을 거절한다.

- G. The church in her bridal identity understands that Jesus cherishes her. Jesus is returning in context to the most sinful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love is more powerful than lust.

신부의 정체성에서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심을 이해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죄악이 가득하고, 왜곡된 세대를 향해 돌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욕보다 훨씬 강력하다.

III. THE SPIRIT AND THE BRIDE CRY “COME!” TO PEOPLE

성령과 신부는 사람들을 향해 “오라”고 외친다

- A. John made four significant statements in verse 17 related to asking people to come to Jesus. We call believers (through discipleship) and unbelievers (through evangelism) to come to Jesus as the Bridegroom, King, and Judge. Revelation 19-22 emphasize Jesus as Bridegroom, King, and Judge. Jesus is a *King with power*, a *Bridegroom with desire*, and a *Judge with zeal* to remove all that hinders love. Here the Church as a Bride calls people to Jesus in this way.

요한은 17 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과 연관된 중요한 4 가지 선언을 한다. 우리는 믿는 자들과(제자도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통해) 신랑이자 왕, 심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불러야 한다. 계시록 19-22 장은 예수님이 신랑이자 왕, 심판자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왕이 되시며, 갈망을 가진 신랑이자,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는 열심을 가지신 심판자이시다. 여기서 신부인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이와 같이 부르고 있다.

¹⁷*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him who hears say, “Come!” And let him who thirsts come. Whoever desires, let him take the water of life freely. (Rev. 22:17)*

¹⁷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¹⁷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이다. (한글 KJV, 계 22:17)

- B. **Statement #1:** The Spirit and the Bride crying, “Come!” describes the Church in unity with the Spirit, engaged in intercession and the proclamation of Jesus to believers and unbelievers from a bridal perspective. His servants are to do this as intercessors and messengers.

선언 #1: 성령과 신부가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은 교회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음과, 증보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의 종들은 증보자와 메신저로서 이를 행해야만 한다.

¹⁷*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Rev. 22:17)*

¹⁷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계 22:17)

1. In Jesus’ final public message, He called people to a gospel message rooted in the truth about His wedding (Mt. 22:1-13). This is the message that will win Israel and the nations. The heart of the good news is we can enter into relationship with the Bridegroom King.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중 설교에서 자신의 혼인 잔치에 대한 진리에 근거한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마 22:1-13). 이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메시지이다. 좋은 소식(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신랑이신 왕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²*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King who arranged a marriage for His son,³ and sent out His servants to call those who were invited to the wedding...⁹“Go into the highways, and as many as you find, invite to the wedding.”¹⁰So those servants went out into the highways...and the wedding hall was filled with guests. (Mt. 22:2-10)*

²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³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 ⁹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¹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마 22:2-10)

2. Jesus set forth a gospel message that invited unbelievers to participate in the beauty, love, and dignity of a wedding and to be part of Jesus’ Bride forever. We invite unbelievers to a relationship with a Man who loves them beyond anything that they can imagine.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셨는데,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혼인 잔치의 아름다움과 사랑, 위엄에 참여할 것을 부르며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의 일부가 될 것을 초청하는 메시지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시는 인자이신 한 분과의 관계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 C. **Statement #2:** Those who *hear* are also to say, “Come” as intercessors and messengers (teaching, writing, disciplining, counseling, parenting, homeschooling, singing, drama, social media, etc.).

선언 #2: 듣는 자들은 또한 중보자와 메신저로서 (가르침, 글, 제자화, 상담, 자녀 양육, 가정 교육, 노래, 드라마, 소셜 미디어 등)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¹⁷ ...let him who hears say, “Come!” (Rev. 22:17)

¹⁷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 (계 22:17) (한글 KJV: 듣는 자도 “오라.”말하게 하고)

1. Let him who *hears* the message participate in praying it and sharing it with others. We must respond as we hear this message by saying, “Come” to Jesus and people. Each believer is to respond to the measure that they “hear.” The measure of our hearing determines the measure of our participation with the Spirit in the end-time move of God.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이것을 기도하며, 다른 이들과 나누는데 참여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예수님에게 “오시옵소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함으로 반응해야 한다. 각각의 성도들은 그들이 “듣는” 만큼 반응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의 정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하심에 성령님과 동역하는 정도를 결정한다.

2. The Holy Spirit wants every believer to *hear and say* this message. Imagine a billion believers filling the earth with this message!

성령님께서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말하기를** 원하신다. 십억의 성도들이 온 세계를 이 메시지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 D. **Statement #3:** The thirsty, who desire Jesus as the Bridegroom God, are to respond by coming or engaging with Him in a deep, consistent way as the Bridegroom God. Their desire has been stirred up by hearing others say to come to Jesus. The message awakens desire in people.

선언 #3: 신랑이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분께 나아오며, 그분과 깊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교제함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들의 갈망은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 일어났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 안의 갈망을 일깨운다.

¹⁷ ...let him who thirsts come. (Rev. 22:17)

¹⁷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 (계 22:17)

- E. **Statement #4:** Those who desire the water must “take” it in the way the Scripture describes. Our effort is required in receiving the free grace of God. We see this principle in Revelation 19:7 in the Bride’s responsibility to make *herself ready* as she participates with God’s free grace.

선언 #4: 물을 갈망하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는 방법대로 이를 “마셔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에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원리를 계시록 19:7 절에서 신부가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에 동참함으로 자신을 예비해야 하는 신부의 책임에서 볼 수 있다.

¹⁷ *...whoever desires, let him take the water of life freely. (Rev. 22:17)*

¹⁷ ...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IV. SEEING THIS PROPHECY IN ITS CONTEXT (REV. 22:12-20)

예언을 문맥 안에서 해석하기 (계 22:12-20)

- A. Jesus described the eternal implications to our deeds and choices (Rev. 22:12-1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행위와 선택이 가지는 영원한 영향력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셨다 (계 22:12-15).

¹²*Behold, I am coming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give to every one according to his work...* ¹⁴*Blessed are those who do His commandments, that they may have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and may enter through the gates into the city.* ¹⁵*But outside are dogs and sorcerers and sexually immoral and murderers and idolaters, and whoever loves and practices a lie. (Rev. 22:12-15)*

¹²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 ¹⁴ 자기 두루마기를 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¹⁵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2:12-15)

1. Jesus taught on eternal rewards more than any other person in the Bible. In giving rewards, Jesus will openly express how He feels about the way we loved Him in this age.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 성경에서 영원한 상급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현재의 시대에서 그분을 사랑한 것에 대해 그분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급을 주심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것이다.

2. We will wear our love as our garments (Rev. 19:8). At that time, Jesus will express openly what we did in secret before the Father (Mt. 6:4).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의복으로써 입게 될 것이다 (계 19:8).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것이다 (마 6:4).

⁸*And to her it was granted to be arrayed in fine linen, clean and bright, 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 acts of the saints. (Rev. 19:8)*

⁸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계 19:8)

3. Heavenly rewards are given to us according to our works or our response to Him. Salvation is a free gift given to us based on Jesus’ work on the cross (Rom. 3:21-31).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measure of glory of each one’s reward (1 Cor. 15:41-42).

하늘의 상급은 우리의 행함이나 그분께 드린 우리의 반응에 따라 주어지게 된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롬 3:21-31). 각자가 받게 되는 상급의 영광의 정도에는 서로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고전 15:41-42).

⁴¹*There is one glory of the sun...and another glory of the stars; for one star differs from another star in glory.* ⁴²*So also i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1 Cor. 15:41-42)*

⁴¹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⁴²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전 15:41-42)

- B. Jesus declared four glorious things about Himself (Rev. 22:16) that are vital to the end-time Church functioning in her bridal identity (Rev. 22:17). These four facets of Jesus’ glory seen in verse 16 are necessary to equip God’s people to walk out the four exhortations in verse 17.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시대 교회가 신부의 정체성 가운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4 가지 영광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셨다 (계 22:16). 16 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의 이 4 가지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7 절에 나타난 4 가지 권고 사항을 행해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¹⁶*“I, Jesus...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¹⁷*And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Rev. 22:16-17)*

¹⁶ 나 예수는 ...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 이라 하시더라 ¹⁷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 (계 22:16-17)

- C.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These two titles emphasize His messianic heritage as both the “Root” and “Offspring” of King David. They point to Jesus’ dual nature in being fully God (the Root of David) and fully man (the Offspring of David).

다윗의 뿌리요 자손: 이 두 호칭은 다윗 왕의 “뿌리”이자 “자손”이신 그분의 메시아적인 유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 호칭들은 완전한 하나님(다윗의 뿌리)이자 완전한 인간(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1. **Jesus is the Root of David**: He is God, who existed *before* David, and is the source and cause behind the kingdom of David. He stands behind all the promises given to Israel.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다윗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왕국이 있도록 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 뒤에 서 계신 분이시다.

2. **Jesus is the Offspring of David**: He is a Jewish man who was born *after* David. He was born in David’s family line. He is a Jewish King who will forever sit on the throne of David to rule over the nations from Jerusalem (Isa. 2:3; 4:2-6; Jer. 3:17; Zech. 6:12-13).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다윗 이후에 태어나신 유대인이시다. 그분은 다윗의 가계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열방을 다스리실 유대인의 왕이시다 (사 2:3; 4:2-6; 렘 3:17; 스 6:12-13).

- 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se two titles give us insight how Jesus will help Israel and the Church in the end times. He will bring them to victory as the Bright Star and the Morning Star.

광명한 새벽 별: 이 두 호칭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광명한 별이며 새벽 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1. ***Jesus is the Bright Star:*** He will guide His people in the darkness of the Tribulation as He fascinates their heart with His beauty and releases His glory. He imparts bright righteousness to His people (Isa. 62:1).

광명한 별이신 예수님: 그분은 대 환란의 어둠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매혹시키며 자신의 영광을 풀어놓으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밝은 의를 부어주신다 (사 62:1)

2. ***Jesus is the Morning Star:*** This gives us assurance of victory as He transitions the earth and His people to a new millennial day. Venus is called the morning star because it is visible (in the east) just before the sunrise of the dawning of a new day.

새벽 별이신 예수님: 이는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주시며, 그분은 이 땅과 자신의 백성들을 천년왕국의 새로운 날로 이끄실 것이다. 금성은 새벽 별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 별이 (동쪽에서) 새로운 날이 밝기 바로 직전에 보이기 때문이다.

3.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as darkness covers the earth, the increasing release of Jesus’ glory will come as the sure sign of the dawning of a new millennial day.

대 환란 동안에 어둠은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이에 예수님의 영광이 증가되어 부어지는 것은 새로운 천년왕국의 날이 밝아오는 징조가 될 것이다.

²Behold, the darkness shall cover the earth [Great Tribulation], and deep darkness the people [the nations]; but the LORD [Jesus at His coming] will arise over you, and His glory will be seen upon you [Jerusalem]. (Isa. 60:2)

²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대 환란] **캡캡합** [한글 KJV: 심한 어두움]이 만민[열방]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예루살렘 위에] 나타나리니 (사 60:2)

4. Isaiah prophesied of songs that magnify Jesus as One ushering in His new day.

이사야는, 예수님을 자신의 새로운 날을 여시는 분임을 높이는 노래를 예언했다.

¹⁴They shall lift up their voice, they shall sing; for the majesty of the LORD...¹⁵Therefore glorify the LORD in the dawning light [millennial kingdom] the name of the LORD God of Israel...¹⁶From the ends of the earth we have heard songs: “Glory to the righteous!” (Isa. 24:14-16)

¹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¹⁵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한글 KJV: 불 속에서, NKJV 직역: 새벽 빛, 천년 왕국] 여호와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¹⁶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 (사 24:14-16)

V. **QUESTIONS FOR SMALL-GROUP DISCUSSION (e.g., FCF FRIENDSHIP GROUPS)**
SMALL-GROUP 토론을 위한 질문들 (즉, FCF 프렌십 그룹)

1. Identify one point that inspired or challenged you. Why? What will you do differently to apply it?
당신에게 영감을 주거나 도전이 되었던 부분 한 가지를 말해보십시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2. Identify one point that you want to impart to a younger believer. Why? How will you approach this?
당신의 젊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를 말해보십시오. 왜입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3. Identify one point that you would like to gain more understanding of. How will you seek to gain it?
당신이 더 이해하고 싶은 부분 한 가지를 말해보십시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